

## 드로잉, 미술관의 금기를 깨다

March 27, 2018 | 김슬기 기자

## 드로잉, 미술관의 금기를 깨다

국제갤러리 김용의 개인전

“얼룩과 손상도 작품의 일환”

“내가 생각하는 드로잉 작품이란 낡고 허름하고 값싼 재료를 사용한 작품, 별다른 노동이나 테크닉 등 공을 별로 들이지 않은 작품, 완성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작품이다.”

김용의 작가(71)는 2017년 11월 27일 이런 글을 썼다. 자신의 지난 40여 년을 갈무리하는 국제갤러리의 개인전 ‘엔드 리스 드로잉(Endless Drawing)’ 전시장 벽면에는 작가가 연필로 이 글을 읊겨 적은 걸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드로잉 작업 40여 점을 겸 이 전시는 작가의 이러한 ‘드로잉 철학’이 그대로 구현됐다. 종이라는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합판, 마대, 종이박스 등 다양한 소재 위에 물감, 연필, 스티커 등 온갖 재료를 뒤섞어 만든 독특한 ‘드로잉’의 난장이다.

최근 만난 작가는 “페인팅과 드로잉을 반대의 개념으로 본다. 질서와 균형에 반대되는 일탈과 탈주가 드로잉”이라고 정의했다. 멀리서 보면 1960년대 미국 모더니즘 추상작품 같기도 하다. 모더니즘 추상은 멀리서 볼수록 이미지가 선명해진다. 그런데 작가는 ‘가까이 가라’고 주문했다. 그는 “내 작품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봐야 연필로 쓴 글씨와 흐릿한 붓자국을 볼 수 있다. 모더니즘에 균열을



‘벳럼’ 1983, 45×63.3cm.

내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히지 않는다. 직접 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살스러운 작업이 많다. 1983년 국립 현대미술관 초대전에 출품됐던 작품은 보관을 잘못해 손상됐는데, 그대로 가져와 비단 액자로 싸서 걸었다. 지붕의 물이 떨어져 색이 침전된 작품, 비뚤게 걸어둔 작품도 있었다. 전시장의 빈 공간 바닥에 쓰레기더미와 함께 쌓아둔 작품까지 있을 정도다.

작가는 “얼룩과 손상도 작품의 일환이다. 수년 전 작품에 덧칠을 한 작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일까, 미술관을 향한 전복의 표현일까. 그는 “대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제 작업이 완성품을 일부러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전시는 4월 22일까지. (02) 735-8449

김슬기 기자